

이물질을 삼켰을 때 응급처치법

www.babydoctor.co.kr

아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5개월 정도부터 8개월 정도가 되면 무엇이든 입으로 확인하려 하는 습성때문에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직경 3cm 정도의 크기라면 어렵지 않게 입에 넣고 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의 행동반경 안에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물건을 놓아두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지만 아가가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담배를 삼켰을 때

삼킨 양이 많지 않다면 우선 입안의 담배를 없애고 깨끗한 가제손수건으로 닦아준 후 우유나 물, 달걀 등을 먹인 후 토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2cm 이상의 담배를 삼켰거나, 재떨이로 사용한 주스 캔을 마셨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만 합니다.

보통 담배 한 개피를 모두 삼켰을 때 아가는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는데 침을 많이 흘리고 토한다면 니코틴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

가시가 작을 경우에는 물을 마시거나 맨밥을 한 숟갈 씹지 않고 삼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므로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책책거리고 괴로워하면 큰 가시가 식도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서 꺼내야 합니다. 특히, 생선가시는 엑스레이로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물질을 삼켰을 때

비누 같은 것은 잘못 토하게 하면 폐를 찌그러뜨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토하게 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아과 의사의 지시를 받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아가가 표백제, 가성소다, 제초제 등의 부식성 있는 약제를 먹었을 때는 절대 토하게 해서는 안되며, 찬물이나 우유를 몇 모금 마시게 한 후 재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기름의 경우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게 해서는 안되며 멀쩡해 보여도 일단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장난감이나 동전 등 단단한 것을 삼켰을 때

대개의 경우는 수일 내로 변과 함께 나옵니다. 좀 큰 경우 위나 장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변을 잘 살펴보아서 나오지 않으면 엑스선 촬영을 해서 배속에 남아있는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내시경을 하여 빼내기도 합니다.

수은전지를 삼켰을 때

수은전지를 삼키면 큰일 납니다. 수은전지는 위산에 녹아서 위에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수은전지는 절대로 아가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시고 일단 삼키면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PPFK